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8월 17일 시동건 다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07.31 23:22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차별없는
피해자 권리보장

불법천지 파견지옥
파견법제지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중대재해 참사 55일
아리셀



55대의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서울출발 버스

2024.8.17(토) 11:30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참가신청 <https://bit.ly/서울-817아리셀희망버스>

버스비 2만원

계좌 3333-17-5846294 카카오뱅크 유흥희

문의 유흥희 010-7355-9826



[일정] 13:30 아리셀 폭발사고 현장(추모행동)
15:00 화성시청 추모행진과 추모문화제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기획단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55일 차가 되는 8월 17일, 전국에서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55대의 '8.17 아리셀 희망버스'가 화성으로 모일 예정이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희망버스 제안서에 "그동안 희망버스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절박하게 투쟁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함께 비를 맞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55일째인 8월 17일(토)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55대를 전국 곳곳에서 출발시키고자 한다"라고 선언했다. 2011년 한진 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을 살린 희망버스가 아리셀 참사 유가족의 요구를 우리 사회의 요구로 함께 외치고 관철하고자 26번째 시동을 건다는 취지다.

희망버스 계좌는 농협 352-0294-8494-13(문정현)이다. bit.ly/817아리셀희망버스 링크를 통해 희망버스 참여 조직을 시작했다. 희망버스는 8월 17일 오후 1시 아리셀 폭발사고 현장 추모행동, 15시 화성시청 추모행진, 추모제 등의 당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일(1일)에는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구속과 교섭 촉구를 위한 직접행동에 유족들이 또다시 나설 예정이다. 8월을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구속과 교섭 재래를 촉구하며 고용노동부, 경찰청, 박순관 거주지에서 시작하게 된다.

유족들은 내일 11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오후 1시 30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지지부진 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의 브리핑 요구와 함께 증거 인멸과 조작의 정황과 우려가 있음에도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의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오후 3시 용인시 소재의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의 거주지를 찾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즉각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직접 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내일(8월1일) 있을 직접행동을 준비중이다.

23번째 시민추모제에서는 이해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이 발언에 나섰다. 이 소장은 “분하고 원통한 심정의 유가족에게 회사의 행태가 모두를 분노케 한다. 구의역, 태안화력, 오송, 이태원 등 연이은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 이제는 정말로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주노동자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파견 노동자라서 일터에서 쓰러지는 현실을 바뀌어야 한다.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조재진 화성YMCA 사무총장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마음을 누군가는 알고 있다. ‘단장지애’라는 말을 아시는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고사성어다. 이런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같이 해야 이겨낼 수 있다. 이 자리에 회사, 화성시 관계자가 있는가? 없다.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위로했다.

지민주 문화노동자가 다시 시민추모제를 찾아‘네가 조심하지 그랬냐고 얘기하지 마세요;’내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두곡의 노래와 이야기로 유가족, 추모제 참가자들과 함께했다.

김정한 운영위원장 (수원녹색당) “23명의 우주가 별이 된 그날을 기억하고 추모한다. 기억하고 추모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에는. ‘연이은 참사가 언젠가는 내가 맞이할 참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어떤 색깔의 리본을 만들어야 할까? 그 어떤 참사가 나와 우리를 비껴갈 수 있을까? 엄마를 찾는 아이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아빠의 마음을 기억하며 새롭게 나의 마음을 다진다”고 했다.

고 강금복, 강금복 님 유족 강영남 님은 “억울하고 분통터진다. 기초적인 안전교육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는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함께 싸워달라. 이길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유족발언했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